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다"
(시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종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신앙 질서 · 창조 질서 · 천국시민 질서는 말씀과 기도의 홍해작전으로 이루리라

"은혜와 질서" 주제로 힘찬 행진 계속

패륜의 시대, 영적 어두움이 만연한 현실적 어려움과 여건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청량감 넘치는 제4차 홍해작전이 지난 6일(목) 새벽 5시 본당 및 갈릴리홀, 베다니홀에서 개최되었다.

20개 지대 1만여 성도가 회집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새벽기도회에서는 한 목소리의 통성 기도로 개인과 가정, 민족과 사회의 막혔던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종윤 위임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첫날 새벽기도회는 주제찬송 403장을 부르고 성경 야고보서 1장 21절을 봉독한 후 이종윤 위임목사의 간절한 목회 기도가 있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은혜 질서를 회복케 하옵시며 겸손한 생활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질서를 보전케 하시고 주신 거룩히 지키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허락하신 천국시민 생활을 바르게 실현하여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게 하소서. 혼란의 악령이 물러가고 질서의 영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되 은혜로운 교회, 책임있는 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경적 가치관을 정착시켜 새로운 질서운동으로 민족을 구원케 하옵시고, 갈라진 홍해를 믿음으로 보게

하사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게 하옵소서."

70세 이상된 연세 많은 성도와 젖먹이 어린 생명들을 비롯한 참가 성도들이 모두 일어나 "주일은 거룩하게, 생활은 검소하게, 질서는 내가 먼저"란 표어 제창을 한 후, 교역자, 장로부부 150여명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었다.

이종윤 위임목사는 "축복의 청사진"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작전은 유일절부터 시작되었음"을 전제한 뒤, "우리들에게 있는 누룩을 제하여 홍해를 건너 진리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자"고 강조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철저히 진단하여 죄의 더러운은 단호하게 버려야 할 것임"을 설교했다. 그 뿐 아니라 "마음의 심진도(道)를 온 유함으로 받아 위기를 극복하고,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약 45분간 진행된 새벽기도회가 끝남과 동시에 교회 안팎 대청소를 말끔히 실시하고, 계속해서 교회학교 학생들이 참가하는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가 성대하게 치러졌다.

홍해작전은 오는 16일까지 계속 된다.

김치(KIMCHI)세미나 7일 폐회

우리 교회 부설 국제 선교와 교회 갱신 한국연구원(KIMCHI)이 주관한 제2회 김치(KIMCHI) 세미나가 열흘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지난 7일(금) 폐회하였다.

이번에 수료한 59명의 참가자들은 세미나 기간 동안 교회 갱신과 성장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새롭게 깨어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세미나 기간 동안 연인원 만7천여명의 충현 성도들이 함께 했던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면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



였으며, 중국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고, 이를 위해 상호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제3회 김치(KIMCHI) 세미나는 한두권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8월 27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주는 제2차 총동원의 날 새벽기도회에 성찬식 거행

홍해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문서 전도 운동을 전개한다. 청년부와 장년부는 해외거주 충현가족들에게, 각부 교회학교는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충현가족들의 주소는 사무국 행정과(소책관 102호)로 접수하면 된다.

주는 교회로 성장한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당회는 제4차 홍해작전을 시작하면서 "주는 교회"로 더욱 성숙해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한국개독교총연합회에 지원금으로 이천만원, 아시아복음주의 신학회(AITA)에 미화 일만원, 동결 YMCA전축기금으로 삼천만원, 그리고 홍해작전 금식미로 드릴 현금 전액은 방글라데시 난민을 비롯한 구제에 동참케 위해 사랑의 쌀 나누기 본부에 기증키로 하였다. 또 오는 7월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개최되는 동구권과 북유럽대회 지원금으로 미화 오천불을 지원한다.

국내외 교회의 책임있는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려는 우리 교회는 충현교회 부설 "개독교사회복

제2차 천국시민총동원의 날인 16일 새벽기도회 때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삶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이 있고, 새벽기도회 후에는 승전을 축하하는 떡 잔치도 갖는다.

사연구소"(소장 김용진 박사)를 설립하고, 장애자, 청소년, 노인, 타가와 같은 제반 사회 문제를 봉사 차원에서 섬기고 해결해 나가게 될 것이다.

영아부 새 친구 초청 잔치

영아부(부장 김천재 장로, 지도 정연희 전도사)는 오는 16일 영아부실에서 홍해작전을 감사하며 9시와 11시에 각각 새친구 초청잔치를 개최한다.

대상은 만3세~4세 어린이로서 아직 영아부에 나오지 못하는 모든 가정에서는 꼭 참석을 바란다.

이날은 영아부 어린이 교육의 필요성을 잘 나타내주는 예쁜전도지 공모전도 아울러서 가질 계획으로 있어 영아 교육에 뜻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라고 있다.

청년2부 1일 성경대학 가저

청년2부(부장 강은원 장로, 지도 김정우 목사)는 지난 6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소책관 514호에서 1일성경대학을 열었다.

원동교회와 연합으로 개최한 이 1일 성경대학은 "모세의 율법

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제로 김정우 목사와 정훈택 목사의 강의와 찬양, 레크리에이션을 통하여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증진과 교제의 시간으로 진행되었

교회에 주차할 시 질서를 지킵시다



홍해작전 및 김치(KIMCHI)세미나 준비 새벽기도회
설교 요지

야고보서강해(2)

이 중 윤 위임목사

첫째, 성도들은 균형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해야 할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책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하며, 성숙한 자는 책임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있는 성도는 인내하는 자이고, 인내하는 자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지혜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혜는 힘이나 병이나 은이나 진주보다 귀합니다(전 3:13, 15, 9:16, 18).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었습니다. 지혜는

야고보서 초두에는 인사말이 나옵니다. 이는 기쁨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 다음에는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기쁨을 주제로 본문에까지 연결하면서 성도의 기쁨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가난한 자는 가난함을 기뻐하고 부한 자는 부함을 감사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삶 속에서 기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첫째,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 하라고 하였습니다.

낮은 형제란 낮은 환경에 처해 있는 밑바닥 인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바닥을 걷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보다 귀하고 높은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존귀해진 것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자신을 바

인간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시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맥없이 거기에 항복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험과 싸우다가 실패의 고배(苦杯)를 마시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의 문 앞에 앞드리고 있다가 문을 여는 순간 우리들 안으로 들어옵니다(창 4:7).

우리들은 모두가 시험과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고전 10:12).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마 2:18).

야고보서에 의하면, 시험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고, 연단을 가져와 신앙의 증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인간 자신이나 세상이나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첫째, 인간 자신에게서 오는 시험을 이

제4일

지혜를 얻는 길

(약 1:5~8)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거둬나지 않은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고전 2:14).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인간 이성만으로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고 인도함을 받을 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5절 말씀에 의하면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지혜를 교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처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들의 어려운 문제가 문제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을 고대해야 합니다. 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로 인하여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본문에는 성공적인 기도의 비결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먼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과를 믿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천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간 그 순간부터 우리들 앞에는 기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기도의 위대함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며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로부터 얻을 수 없습니다.

제5일

빈부의 무상함

(약 1:9~12)

라를 때 절망을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면, 가치관이 변화되어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새로운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로 지은 새 옷을 입게 됩니다.

둘째, 부한 형제들은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고 하였습니다(렐 9:23). 우리들은 일반 악의 뿌라인 돈의 유혹을 과감히 던져버려야 합니다(딤후 6:10, 마 13:22). 예수님께서도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부자가 돈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써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재물을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약 1:10). 그러므로 이와같이 일시적인 땅의 재물을 믿거나 거기에 가치를 두는 자는 어리석은 자

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물질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짐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셋째, 고통 중에 있는 자도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12절의 말씀은 앞에 나오는 내용들과 연결됩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요한 대로 각각 시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잘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리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켜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6일

시험을 이기는 비결

(약 1:13~16)

기는 비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담의 불신죄는 유전이 되어 그 후손인 우리들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범죄할 경향(傾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들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범죄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죄악에 물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피하라"고 하였습니다(고전 6:18; 딤후 2:22). 인간들의 자기 체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그 자리를 파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체계로부터 오는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시계, 교만, 분냄, 다툼 등의 시험에 빠지는 것은 다분히 이기적이고 자

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는 말씀에 의하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고, 산을 적극적으로 행할 때에 세상적인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 순복(順服)하고 마귀에게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들을 꾀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기본 전략이 하나님께는 복종, 마귀에게는 대적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들보다 강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주님의 힘을 힘입기 위해서는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그분의 뜻에 복종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매일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우리들이 받는 물질적, 종교적 시험과 명예욕과 같은 시험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럴 때에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물리치셨으며,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마 4:요 15:3). 우리들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들을 쓰러뜨리려는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회자 : 6월 6일부터 실시된 제4차 홍해작전에 어떤 자세로 참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치민 : 저는 작전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은혜를 받으려합니다.

전성자 : 우리가 살 길은 기도 뿐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놓인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홍해도 가르실 줄 믿습니다. 한나와 같은 일님의 기도, 엘리야와 같은 전념의 기도, 그리고 미스바에서와 같은 열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희주 :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도달해야 할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절대 신앙, 절대 순종, 절대 충성하는 자세로 임하렵니다.

김순희 :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어서 인간적으로는 탈출 방법을 도무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에 따라 행진하기를 원합니다.

한춘홍 : 매년 홍해작전을 전개하고 있지만 금년에는 좀 남다른 각오가 있습니다. 우선 주제가 "은혜와 질서"라는 데에 호감이 가고, 적시에 알맞게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도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무질서를 추방하고 질서를 추구하는 데 홍해작전이 새롭게 변화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양옥자 : 기도로 준비하며 모든 일을 뒤로 미루고,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드리려 합니다.

송원석 : 지금까지의 교회 행사에 있어 청년들은 단지 참석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청년들은 자신의 관심에 맞는 행사에만 참여하여 왔고 이러한 모습은 피동적 자세와 열

우리는 지난 6월 제4차 홍해작전 진군을 시작했다. "은혜와 질서"가 주제인 이번 홍해작전은 그동안 3차에 걸친 홍해작전을 통하여 이룩했던 영적 각성과 생활의 모범을 말씀과 기도로 지속하면서 성숙한 천국시민으로 진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개월 동안 홍해작전을 위한 기획과 기도의 준비를 해오면서 우리 앞에 놓인 홍해를 담대하게 건널 것을 진군에배치에 다짐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물거품과 구름겨둥이로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번 홍해작전을 통하여 퇴폐하고 강박해진 우리들의 심령들을 성령의 담비로 해갈시켜주실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내재한 불의와 불행, 거

> 제4차 홍해작전 긴급 좌담회 <

은혜와 질서의 새생활 운동

일시 : 1991년 6월 5일(수)
장소 : 본당 203호 (홍해작전 본부실)
참석자 : 박치민 장로 (차량관리부 부장)
 한정남 전도사 (봉사 참모)
 나희주 집사 (스테판회 부회장)
 전성자 권사 (홍해작전 홍보참모)
 한춘홍 집사 (제9교구)
 김순희 집사 (초등6부 교사)
 양옥자 권찰 (제17교구)
 송원석 성도 (청년2부 회장)
사회자 : 손경수 장로 (홍해작전 기획참모)



심 없음으로 교회에 비추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홍해작전은 교회가 전력을 집중하는 기도 운동이기도 하며 기획단계에서부터 청년이 참여하였으므로 청년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하겠습니

다. 저 역시도 지금까지의 피동적 자세와 어린 아이의 자세를 벗고 당당히 참여하는 첫 교회 행사가 되며, 충현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일원으로서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회에 동참하는 자세로 홍해작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이번 주제가 "은혜와 질서"인데 무질서의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시고 해결책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성자 :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무질서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거래 질서, 교통 질서, 정치 질서, 사회 질서가 극도로 문란해 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국민 모두가 자리의 교육을 철저히 받는 것입

니다.

나희주 : 사치풍조와 과소비문제, 혼란한 가치관, 퇴폐풍조 등 사회를 병들게 하는 현상을 해결키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순화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도록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한정남 : 저도 나희주 집사의 견과 동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므로 사치, 허영 지나친 혼수 준비를 지양하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는 말씀을 생활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순희 : 마음의 무질서와 행동의 무질서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춘홍 : 교회내에서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무질서 예를 들면, 예배드릴 때 안쪽으로부터 차례 차례 앉지 않고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자기 자리만 고수하려는 자세, 차를 주차시킬 때 자기만 편하게 정차하려는 태도, 식당에서 급식시 세척기 및 아무데나 넣

게 자리를 차지하고 식사하는 태도, 찬양대 카운을 제대로 정돈하지 않는 자세 등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무질서의 폐단, 질서의 편리함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로 "우선 나 자신부터"라는 각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양옥자 :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질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로 생활한다면 무질서는 자연히 사라질 것입니다.

송원석 : 무질서는 사랑의 결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물에 무심히 버려진 휴지를 보면 식당에서의 질서의 결여, 사용 후 무질서한 방치 등이 생각납니다. 이에 관한 해결책은 백마디 말보다 교회의 모든 물건과 시설은 하나님의 것이니만큼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한다는 의식의 확립일 것입니다. 성도간에 서로가 가장 귀한 사이임을 명심하고 하나님 사랑하듯 섬기고 나누면 자연스럽게 질서가 생길 것입니다.

박치민 : 모든 차량은 정확하게

모두들 영광스런 주님의 나라를 향해 진군하는 데 나 혼자만 나오되는 그리고 대열을 이탈하는 탈영자가 되어서도 아니되며,

주차하고, 아무데서나 승하차하지 말며,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는 교인은 복잡한 장소를 피해서 내리는 질서의식이 필요합니다. 은혜만큼이나 질서도 지켜야 합니다.

사회자 : 홍해작전 기간 동안 어떤 봉사를 하고 있으며, 무슨 은혜를 사모하려고 합니까?

한정남 : 믿음으로 홍해를 가른 기도의 불길로 성령과 말씀에 붙잡힌 바된 은혜를 받아, 주님께 하듯 성도를 사랑하며 섬기는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김순희 : 차 함께 타기 등을 통하여 서로 도와주는 마음과 남을 칭찬해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마음의 봉사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양옥자 : 식당 봉사와 같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말씀 잘 받아서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나희주 : 기획참모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송원석 : 저는 이번 제4차 홍해작전에 있어 동원의 임무를 맡아서 하나님의 목회에 동참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현에 속한 모든 식구들을 이 은혜의 잔치에 한 분이라도 더 나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성도들의 동참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 봉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싶습니다.

사회자 : 이번 홍해작전이 성공적으로 전개되어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귀한 기도운동이 될 수 있도록 충현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것과 증오, 미움과 조소 등을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홍해를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한 발자국씩 건널 것이다.

양과 충성으로 순종하면서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며, 우리들의 모든 생활 자세는 겸손하게 하고, 질서 유지에 내가 앞장서는 모범적인 생활을 다져나갈 것이다. 이

다.

모두들 영광스런 주님의 나라를 향해 진군하는 데 나 혼자만 나오되는 그리고 대열을 이탈하는 탈영자가 되어서도 아니되며,

서 마련해 주신 신앙과 질서의 새생명운동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알고, 함께 손을 잡고 서로 위로하면서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한 걸음씩 진군해야겠다. 특별히 이번 작전은 질서의 작전인 만큼, 성도 개인이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정한 시간내에 모임에 힘쓰며, 지정소인 예배당내에서는 앞자리에서부터 순서있게 착석하는 훈련과 질서의식을 확립해야 하겠다.

기도로 중무장한 우리들을 사단과 마귀가 결코 가로막을 수 없다. 대장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완전무결한 진격에 온 힘과 정성을 다 바쳐야 하겠다.

하나님의 은총이 제4차 홍해작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 홍해작전 진군에 들어서서

함께 손잡고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김은호 장로
(홍해작전 참모장)

11일간의, 홍해작전을 위하여 10일간의 예비 새벽 기도회(김치 세미나 병행)로 준비케 하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작전 지령을 절대 신

변 기회에 개인에게는 영적 충만 이, 가정에는 성령 충만이, 그리고 사회와 민족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획기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한

진두진휘하는 사령관을 위대한 채, 각개 전투로 영적 전쟁을 승리 가 아닌 패배로 이끄는 이단이 있어 서도 안되겠다. 충현의 모든 식구들은 이번 홍해작전이 주님께

■제2회 김치(KIMCHI)세미나 폐회

중국과 세계 복음화 다져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화에 원대한 꿈을 안고 지난 71년 선교사 제1호를 파송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22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였다. 90년 국제 선교와 교회 갱신 한국연구원(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 KIMCHI)을 개설하고, 11월 그 첫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로서만이 아니라, 바르게 훈련시키는 교회로서의 향도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동구권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개최했던 제1회 김치(KIMCHI)세미나에 이어 제2회는 91년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중국어권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진행되었다.

이번에 초청받은 교역자들은 홍콩, 필리핀,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 등지에서 복음화

를 위하여 사역 중에 있다. 이들이 봉사하고 있는 교회는 대부분이 직제는 50명에서 많게는 2백여명의 성도들이 모이고 있다. 참가자들은 자신들 교회의 성도들이 소극적이거나 의기소침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 게다가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해야 할 목회자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참가 교역자들은 우리 교회에서 개최된 김치(KIMCHI)세미나를 통해서 대단한 각성과 도전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영적 갱신과 교회 성장에 대한 실체적이고 가시적이며 가치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는 자신들의 목회 사역에 유익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새벽 이른 시각에 기꺼이 교회로 나오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으며,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통성기도, 합심기도의 위력을 체험하고 기도야말로 교회성장의 원동력임을 인식하였다.

이들은 세미나를 통하여 배우고 체험한 것들을 자신들의 교회 성장과 중국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가면, 다락방을 조직하여 교회 성장을 꾀하고, 성도들의 영적 갱신을 위하여 새벽기도회 등 개인 기도생활과 말씀 묵상을 통한 성결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이 중국 민족의 복음화뿐 아니라 세계 선교의 작은 불씨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란다.

제자훈련을 다녀와서

변화와 다짐의 시간

김 회 경 성도(초등6부 교사)

제자훈련에 참여했던 그 시간은 내가 살아온 어느 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많은 수양회 모임을 다녀왔으나 이번 기회가 내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한 교회의 직분자로 교육을 받는 것은 많은 설레임과 기대를 동반하는 일이었다. 또한 내가 동경했던 세계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있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나 기뻐했다.

4월 4일 설레이는 마음으로 교회로 향했다. 이미 교회에는 7백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와 있었다. 나도 그 중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 기도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떨리는 마음이 가득한 가운데 기도원에 도착, 계획된 일정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사실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기쁨과 지금까지 알고는 있었지만 새로이 인식되는 많은 것들이 내게는 도전이 되었다.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셨고, 나도 다시 쓰임받을 수 있

구나 하는 안도감과 벅찬 감격에 나도 모르게 감사의 기도가 넘치고 있었다.

첫날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새벽, 산에 올라가 찬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맨 땅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안도감과 평안함이 마음을 지배하였고 하나님과 나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착각마저 들었다. 30분간의 기도회가 짧다고 느껴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사방이 나무로 뒤덮여 있는 고요한 성산에서 자신이 기도회는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만 같았다.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그 동안 게으르고 나태했던 내 자신을 발견하고 많은 한성과 회개를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봉사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나라질서 짓밟아

학생이라는 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서 있다. 찢진 눈에 붉은 띠를 메고 서 있다. 이 나라가 미제의 식민지라나, “민족해방!”이요, 대통령 직선의 이 정부 언론 권력의 이 사회를 가리켜 “파쇼타도”라고 외치대면서 버티고 서 있다. 명동성당과 백병원과 그리고 대학의 모든 “해방구” 전선에 이 천둥벼락들이 날뛰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이 폭력배들이 폐련아의 정체를 드러내 환갑을 넘은 국무총리에게 온갖 행패를 다하며 수모를 주었다. 시간강사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지하철 타고 가서 마지막 강의를 하는 나라의 어른을 밀가루 뒤집어 싸우고 먹살잡이 하며 웬 “살인마!”라고 부르고 주먹질, 발길질에 2단 옆차기까지 하였다.

나라의 권위와 질서를 비벼 밟았다.

무어라고? 이 나라는 반민주 국가이고 북한의 김일성 수령인 정체가 민주까지 되어야 한다고? “노(盧)정권” 퇴진시켜 헌정이 중립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황폐한 물결로 몇몇이 모여 무슨 민주적 국민 대책기구, 민주대연합 임시정부 만들어 내란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소리질러 대던 “민주화! 민주화!”의 정체가 겨우 레닌의 “민주집중제”였을 뿐이라고? 그래서 몇 만명이 대학생이라고 모여서 “의장님! 의장님! 우리 의장님!”하고 신주모시듯 하였다고?

그래 경찰 발목에 중화상 입혀려고 휘발유에 신나에 실탄까지 섞어 화염탄 던지는 것이 무슨 시위냐! 가두(街鬪) 하러 나선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 이 악한 무리들에게 간청을 하였던 것이 잘못되었다. 약하게 보인 것이 잘못되었다. 그들도 나라를 사랑할 것이라고 믿은 것이 아마도 잘못 되었나보다.

호소를 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선량한 시민들에게 하여야 했다. 선량하기는 하지만 좀처럼 이기적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침묵하는 다수에게 정신

가 조를, 난타당하면 나라가 그 꼴 당하는 것이요, 만일 “민족해방”되는 날이면 김일성 신(神)께 경배하는 날이 되고 마는데, 이런 악행이 마냥 계속되고도 늘 위기의 연속 같은 이 나라가 온전할 수 있다고 진정 그렇게 믿는가.

선택을 하여야 한다. 아니 결단을 하여야 한다. 무엇이 그른가를 말해야 한다. “예”와 “아니

그간에 우리가 사석에서인들 말을 똑바로 하였다. 언론은 바로 말하였다. 다 조금씩 뻘뻘게 말했다. 조금씩 조금씩 타협하고 책임전가를 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 국가공권력의 최대 상징인 검찰권을 한 움큼도 안되는 가두세력의 허튼 소리와 동격(同格)으로 격하시켰다. 국가 부정부패, 역사 왜곡, 체제 파괴 세력의 거친 행패를 마치 절반의 정당성이 있는 양 미화하였다. 기강이 무너지고, 윤리가 실종되며, 가치관이 혼돈에 빠지는 것은 실로 당연한 것이었다.

우리들은 정말 옳고 그른 것을 몰라서 눈만 껌뻑깜박해 왔던가. 엉거주춤 속수무책으로 방관해왔던가.

가두에 내몰린 젊은 경찰들이 너무 불쌍하다. 백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불쌍하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똑바른 학생들이 안쓰럽다.

모두 제 자리를 지켜다오. 자기 자리나 지켜다오. 선생은 가르치고 학생은 공부하며, 기지는 사실을 쓰고 정치인은 국가를 경륜하며, 정부는 질서부터 잡다오. 욕 먹을 것 각오하고 제 할 일이나 해다오.

■독자의 난

오늘을 생각한다

(이 글은 6월 4일자 조선일보에 실렸던 것을 전재한 것이다.)



김 상 철 집사
(법조인선교회 부회장)

주제에 솔직히 도시 게릴라라고 하지 웬 평화시위며, 무슨 고상한 시위문화 찾고 있느냐!

윤리가 무너지면

부모가 낳아 길러준 육신을 처참하게 불태워 죽인 자를 “열사” 칭호 붙여 숭배하는 무리들이 무슨 인간사랑을 내세우며 겨레 사랑을 노래하는가! 죽음의 사제가 어찌 목사이며, 생명의 구원자가 되어야 할 성당과 병원에서 어찌 죽음의 국관이 계속되느냐!

이 변칙드는 시대적 질문을 하여야 했다.

묻는다. 당신들은 윤리가 무너진 세상에서 살 수 있느냐. 모두가 들뜨고 열빠져 “저마다 제멋대로”하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느냐. 그곳은 민주화된 사회가 아니라 혼란의 악령이 출몰하는 난장판일 뿐이다.

묻는다. 나라가 허물어져도 당신들의 쾌락은 계속될 수 있느냐. 이 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오”를 구별해서 말해야 한다. 보수냐 진보냐, 매파냐 비둘기파냐의 말장난이 문제가 아니다. 조용한 가운데 선한 양심의 속삭임에 귀기울여 선과 악을 분간해서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욕을 먹어도 할 수 없다.

제자리를 지켜야

조를을 당하거나 매를 맞더라도 말해야 한다. “그것은 맞다. 그것은 틀린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